

**2020년 2분기  
기업설명회 Presentation  
Script**

**BNK** 금융그룹

## (1p)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BNK금융그룹 CFO 명형국 부사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사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상반기 경영실적에 대해 실적발표자료의 하이라이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p) 2020년 2분기 그룹 경영실적 Highlights

### -그룹 손익현황과 수익성

2020년 2분기 그룹 당기순이익은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1,732억원을 시현해 전분기대비 25.8% 큰 폭 증가했으며, 상반기 누적 그룹 당기순이익은 3,109억원을 달성 하였습니다.

상반기 이자부문의익은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3.3 % 감소했으나,

수수료부문의익은 엘시티 PF 수수료 수취 및 IB부문 실적 호조, 증권 수수료이익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57.4% 큰 폭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부문의익은 대출채권 매각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37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용부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그룹 판매관리비는 부산은행 희망퇴직비용 등의 일회성 요인과 투자증권 성과급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했으나,

일회성 요인 제외 시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한 수준이며 경영계획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손상각비는 1,82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하였습니다. 2분기 대손충당금에는 미래경기전망을 반영한 양행의 보수적 충당금 255억원과 라임펀드관련 충당금 116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부도/도산 감소 등 건전성개선에 따른 대손비용 축소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열사별 손익 현황입니다.

상반기 은행부문 당기순이익은 2,827억원으로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 등에 전년동기대비 17.6% 감소했으나,

비은행부문 당기순이익은 780억원으로 투자증권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8.4% 증가하였습니다.

부산은행 상반기 순이익은 1,78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0% 감소하였습니다.

엘시티 PF수수료 수취와 IB 실적 호조에 수수료이익은 큰 폭 증가

했으나, 희망퇴직 실시 및 보수적 총당금 적립, 전년도 거액 총당금 환입 효과 소멸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컸습니다.

경남은행 상반기 순이익은 1,04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1% 감소했습니다.

이자이익 및 기타부문 이익이 감소했으나, 대손비용 축소 등 철저한 비용관리와 수수료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 감소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캐피탈과 저축은행은 안정적인 성장과 대손비용 관리로 양호한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전년도 일회성 이익 27억원 소멸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증권은 IB부문 실적 호조와 유가증권 수수료이익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순이익이 77.2% 큰 폭 증가했습니다.

#### **(4p) 은행 NIM 및 원화대출 성장성**

2분기 그룹 NIM은 1.86%로 전분기 대비 3bp 하락했습니다.

부산은행 NIM은 1.88%로 예대금리차 축소와 정리채권 이자 감소에 전분기대비 6bp 하락했으나,

경남은행 NIM은 1.83%로 전분기 대비 1bp 상승했습니다.

금리하락에 따른 원화대출채권수익률 하락에도 고금리 정기예금 만기도래와 핵심예금 증가로 순이자마진이 개선되었습니다.

3분기 은행 NIM은 대출금리 리프라이싱에 추가적인 하락 예상되나, 핵심예금 증가 및 고금리 정기예금 만기도래 등에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행의 대출 성장 부문입니다.

상반기 부산은행 원화대출금은 전년말대비 1.7%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은 엘시티PF를 비롯한 집단대출 만기상환 영향에 전년말 대비 3.3% 감소한 반면,

기업대출은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대출 증가로 전년말대비 4.7% 증가했습니다.

경남은행 원화대출금은 전년말대비 4.2%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이 전년말대비 1.4% 감소했으나, 중도금 집단대출 신규유치 확대로 2분기 들어 감소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지원 대출과 PF대출 중심으로 성장하며 전년말 대비 6.9% 증가했습니다.

#### **(5p)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상반기 그룹 NPL비율은 1.05%로 지역의 부도/도산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양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및 경남은행 고정이하 거액여신 회수로 전분기대비 3bp 하락했습니다.

부산은행 NPL비율은 0.96%로 거액 부동산 PF대출 1건의 건전성 재분류 영향에 전분기대비 9bp 상승했으며,

경남은행 NPL비율은 0.90%로 고정이하 거액여신 회수와 부실채권 매/상각에 전분기대비 20bp 하락했습니다.

상반기 그룹 연체율은 0.77%로 양행의 부실채권 매/상각에 전분기 대비 7bp 하락했습니다.

부산은행은 연체율은 거액 부동산 PF대출 연체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2bp 소폭 상승했으며,

경남은행 연체율은 전분기대비 17bp 하락했습니다.

상반기 그룹 대손충당금전입액은 1,82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했습니다.

미래경기전망을 반영한 보수적 충당금 적립과 라임펀드 관련 충당금 반영 등 일회성 증가 요인이 있었음에도, 부실 감소와 철저한 건전성 관리로 전년동기대비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Credit Cost는 44bp로 전년말대비 9bp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정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그룹 CET1비율은 순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산성장에 따른 RWA 증가로 전분기대비 12bp 하락한 9.41%를 기록하였으나,

바젤Ⅲ 최종안 적용 감안시, 3분기 CET1비율 9.6% 이상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매 기업설명회때 마다 배당성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내부등급법 승인 등 자본비율 개선 일정에 따라 점진적인 배당성향을 높여 나가는데 대한 방향성을 유지할 방침이며 금년도의 경우 코로나 19로 감독당국 배당자제 권고 등이 예상되지만 주당배당금이 전년도 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